멜라민 제품 수거 제대로 안된다

광주·전남 등 식품수입 업체 2만여곳… 유통 현황 파악 못해

식약청, 검사 대상 가공식품 428개 중 232개만 검사 마무리

광주·전남 지자체, 교육청 등이 중국산 멜라민 성분 함유제품 수거·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에 식품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0시 현재 멜라민 검사 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428개 가운데 232개 식품의 검사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은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6개(11회 검출) 제품이다.

전남도도 멜라민 파문이 가축 사료로까지 확산되자 이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멜라민 제품 종합대책본부'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도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1일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식약청에 따르면 영세 수입업체에 대한 제품 유통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 수거도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전남 359개소를 비롯해 국내 식품 수입업자들이 2만여개가 넘는데다 이 가운데는 대표자를 포함해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곳도 상당수에 달해 제품 유통현황 파악과 제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신고만으로 식품수입업을 하고 있는 데다 인력 등에 대한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수입업체 난립은 위해식품의 회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청이 이번 멜라민 사태 이후 국내에 수입된 커피크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찾아간 결과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또다른 한 곳은 업자들이 사무실을 비운 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가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도입여부는 미지수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식품제조업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통관검사에서 정밀검사 비율은 23%에서 30%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수출업체 관리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 수입식품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관광기념품 공모 수상작 다 모였네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둘러보고 있다. 4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수상작 110점 등 5천여점이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토부 소유 땅, 광주 177㎡·전남 1,472㎡ 무단 점유

국토해양부 소유의 공공용지 등 부동산 중 전남이 1천472㎡, 광주가 177㎡를 점용 및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유 부동산 63억1천800만㎡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억7천016만㎡가 무단 점유되고 있다. 전체 무단 점유 건수는 5만6천276건이고 총 3만2천809 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중 시·도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1만1천770건, 4천906만㎡로 가장 많고, 충남 1천523만㎡(3천675건), 전남 1천472만㎡(6천941건)등의 순이었다.

광주지역의 무담 점유는 1천68건에 177㎡로 6개 광역시 중 최고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라 빚 311조6천억

작년보다 13조 늘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11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채무 증가로 재무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를 통해 만기가 일시에 집중 도래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국가채무는 165조3천억원이 늘어나면서 2002년 대비 123.7% 증가했다. 이 증가분은 외환시장 안정(69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52조7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29조2천억원), 서민주거 안정(9조3천억원) 등에 쓰였다.

작년말 기준 298조9천억원의 채무 가운데 57.5%(171조9천억원)는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였고 나머지 42.5%(127조1천억원)는 적자성 채무였다.

올해는 국가채무가 적자성이 131조8천억원, 금융성 179조8천억원 등 모두 31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12조7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1천억 수준이다.

/연합뉴스

고흥 주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전국 시·군·구 중 노인 비중 최고… 고령화 가속화

올 들어 고흥군의 노인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남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전국의 경우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망률은 줄어들고 이혼 및 재혼비중이 급증하는 등 고령화사회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현재 고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2만3천557명에 달한다.

이는 고흥군 인구(7만7천506명)의 30.4% 수준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노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은 고흥군 이외에도 ▲보성군(28.4%) ▲함평군(28.0%) ▲곡성군(27.6%) ▲신안군(27.5%) 등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았다.

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501만6천명에 달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의학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0대 남자의 인구 1천명당 사망률은 43.2명으로, 10년전(63.3명)보다 31.8% 줄었다. 여자 70대도 사망률도 지난해 22.7명으로 10년새 35.7%나 감소하는 등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또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들의 이혼과 재혼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고령자의 이혼은 1천427건(여자기준)으로 10년새 5.8배나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藥도 없고 그저 스스로 깨어나기만…

중국에도 밀려… 한국, 경쟁력 세계 22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나 중국보다 두 단계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가경쟁력 문제를 연구해온 민간 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IPS)은 1일 발표한 '2008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점수가 48.69점을 얻어 분석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PS가 자체 분석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5년과 2006년 22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23위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한 단계 회복했다.

65개국 가운데 미국이 67.6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 캐나다,스웨덴, 홍콩, 핀란드, 싱가포르, 벨기에, 호주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지방공무원 '명퇴'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수시 명예퇴직하는 지방공무원을 정기 명퇴자와 같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 넣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정기 명퇴 시점이 아닌 때에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승진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명퇴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신청하고 비위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기 명퇴자들은 명퇴 여부 결정 때 대부분 특별승진한다.

그러나 수시 명퇴자들은 본인 희망일에 먼저 퇴직하고 나서 명퇴 여부가 확정되는 바람에 특별승진 혜택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해마다 다른 명예퇴직 예정일과 신청기간을 지자체 규칙으로 명문화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결정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김영선씨

행정안전부의 2일자 인사에 따라 김영선(50·사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이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됐다.

현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김 기획관리실장은 광주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도 기획관, 행자부 행정정보화 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본보 9월30일자 2면에 게재된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650 상속한정승인 공고 중 『연락처:광주 광역시 북구 중흥동 655-4 문숙현(062-521-9999)』를 『연락처:광주 광역시 동구 소태동 112-1 문숙현(062-234-3322)』로 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부동산 대출
☑ 아파트 2순위 대출
☑ 임대 아파트 특별 대출(임대금액의 80%)
주택·논·밭·임야·나대지 추가 대출
※ 좋은 사업에 좋은 자금주(주주)분 모십니다. 임원 및 개인 금융 사업자 모십니다.
한국 금융 투자 T.062)374-3020
광주 서구 482호(금리 연 24~49%)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분양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12,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층	면적	권장업종
1층	15평~200평	금은방, 안경, 커피숍, 약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2층	200평	훼미리식당,병원,단란주점,노래방
3~6층	각200평	병,의원, 학원, 독서실등
7층	200평	휘트니스 클럽
8층	50평	스카이 라운지

※면적 15평 부터 분할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010-7723-1033

여수시공고 제2008 - 78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여수 죽림·적량지구 및 미평, 군내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생략
2. 공람기간 : 2008. 10. 2. ~ 2008. 10. 16(14일간)
3. 공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도시계획과 담당자 김문환 ☎ 061-690-2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도서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yeosu.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아보청기◇

10~30%
보청기 보상판매
무료출장상담 (청력검사)
부모님의 어두운 귀를 활짝 열어드리세요.
☎062)527-3171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고가방향)맞은편